

추천 5.

여름 꽃 산수국

김호준 박사 / 그린과학기술원 원장

4. 산수국과 그 형제들

■ 산수국 야사(野史)

향토수종 산수국은 장미목(Rosales) 범의귀과(Saxifragaceae) 수국屬(*Hydrangea*) 나무다. 경기도와 강원도 및 그 이남에 자생하는 낙엽활엽관목으로서 우리나라 토박이 나무다.

수고(樹高) 1m 정도 자라는 산수국(山水菊)은 산에 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을 좋아해 계곡가까이에 자주 나타나는 나무다. 그렇다고 해서 물이 질퍽한 곳을 좋아한다는 것은 아니다. 산골짜기 습기 많은 곳, 숲속 그늘이 지고 돌이 많은 곳이 이들의 자생지다. 산기슭의 돌은 아래로 유실되는 물을 잡아주기도 하지만 물 빠짐 또한 좋게 한다.

산수국에게는 가까운 형제들이 있다. 동일 계통의 종(種, Species)과 변종(變種, Varietas) 그리고 품종(品種, Forma)이 있는데, 우리가 자주 보고 이용하는 나무는 산수국, 수국, 나무수국이다. 산수국은 꽃이 아름답고 그늘에서도 잘 자라 음지식물로 이름이 높고 수국은 여러 색깔의 꽃이 탐스럽고 화려하여 정원조경 소재로 각광받는 나무다. 또 나무수국은 꽃이 탐스러울 뿐만 아니라, 순백(純白)의 미(美)가 극에 달하여 어디서나 대접을 받는다.

이들 수국속(屬) 나무들은 몇몇 가계(家系, 혈연적 유대의 계보)가 있다. 산수국과 형제관계인 탐라산수국, 꽃산수국, 떡잎수국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같은, 즉 속(屬)과 종(種)이 같은 동일종의 변종과 품종들이다. 이에 반해 수국, 나무수국, 등수국, 미국수국은 산수국과 할아버지는 같으나 아버지가 다른, 즉 속은 같으나 종이 다른 4촌 관계의 나무들이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문의 계통과 혈통관계를 수

록한 족보(族譜)가 있다. 예를 들어 김해 김씨, 김해 허씨, 인천 이씨는 모두 동일 김해 김씨에서 갈라져 나온 성씨다. 이처럼 우리의 호적에는 전통적으로 무슨 김씨, 무슨 이씨 등의 본관이 붙듯 수국에도 동일종에서 갈라져 나온 변종이나 품종이 있다.

또 고향에서 멀리 이주하여 자리 잡은 곳을 본관으로 하듯 귀화한 외국인의 성씨와 본관도 정착한 곳의 지명을 따 호적에 올림으로써 새로운 가계의 선조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성씨나 본관이 새로 정해지기도 하고, 같은 성씨에 본관이 다른 가계가 생기듯 나무도 계통을 가진다.

■ 산수국 형제들

한국명	학명	원산지
산 수 국	<i>Hydrangea serrata</i> for. <i>acuminata</i> Wilson	경기도, 강원도 이남
탐라산수국	<i>H. serrata</i> for. <i>fertilis</i> Nak.	제주도
꽃산수국	<i>H. serrata</i> for. <i>buergeri</i> Nak.	제주도
떡잎수국	<i>H. serrata</i> var. <i>acuminata</i> for. <i>coreana</i> T. Lee	제주도

※ var. : Varietas(변종). for. : Forma(품종).

■ 산수국 사촌들

한국명	학명	원산지
수 국	<i>Hydrangea macrophylla</i> (Thunb.) Ser.	한국, 중국, 일본
	<i>H. macrophylla</i> for. <i>otakasa</i> Wilson	일본(원예품종)
나무수국	<i>H. paniculata</i> Seib.	일본
큰나무수국	<i>H. paniculata</i> for. <i>grandiflora</i> Ohwi	일본(원예품종)
등 수 국	<i>H. petiolaris</i> S.et Z.	제주도, 울릉도. 일본
바위수국	<i>Schizophragma hydrangeoides</i> S. et Z.	울릉도, 제주도 남쪽 섬지대. 일본
미국수국	<i>H. arborescens</i> L.	미국산

(1) 산수국

- 학명 : *Hydrangea serrata* for. *acuminata* E. H. Wilson
- 영명 : Mountain hydrangea
- 한명 : 山水菊

① 형태적 특성

■ 잎

잎은 대생(對生, 마주나기)하며 길이 5~15cm, 폭 2~10cm의 타원형~난형 또는 난상 피침형(화살촉 모양)으로서 표면의 측맥(側脈, 가운데 잎줄에서 좌우로 갈라져 가장자리로 뻗은 잎줄)과 뒷면 맥 위에 잔털이 있다.

잎의 선단은 꼬리처럼 긴 점첨두(漸尖頭, 끝이 점점 뾰족해지는 모양)이고 기부는 원저(圓低, 밑이 둥근 모양)~예저(銳低, 밑이 뾰족한 모양)이며 가장자리에는 예리한 거치(銳鋸齒, 날카로운 톱니)가 있다. 잎자루 길이는 1~3cm다.

■ 산수국 잎과 꽃(참꽃 - 가운데 보라색, 장식꽃 - 가장자리 연분홍색, 7월 중순)



■ 꽃

꽃은 6~7월 가지 끝에서 산방화서(繖房花序, 여러 대로 갈라진 꽃대에 개화하여 상단이 쟁반처럼 평평한 모양)로 핀다.

꽃대에는 잔잔한 진짜 꽃(참꽃) 양성화(兩性花, hermaphrodite flower, bisexual flower, 암술과 수술이 있어 열매를 맺는 꽃)가 중앙에 달리고 그 주변을 돌아가며 가짜 꽃(장식화) 중성화(中性化, neuter flower, asexual flower, 암술과 수술이 퇴화 또는 발육 불완전하여 불임성인 꽃)가 핀다.

참꽃(眞花, 진짜 꽃) 양성화는 지름 5mm 정도로서 보랏빛을 띠고 꽃잎과 꽃받침 조각은 각각 5장이다. 수술 5개, 암술 1개이며 길이는 모두 3~4mm다. 장식화(裝飾花, 가짜 꽃) 중성화는 직경 2~3cm의 꽃받침으로서 개화기의 6월부터 10월 하순까지 피어있다. 꽃잎은 3~5장으로서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긴 꽃대에서 나와 핀다.

산수국과 형제격인 탐라산수국(*H. serrata* for. *fertilis* Nak.)은 장식꽃이 중성이 아니고 양성(兩性花)이며, 꽃산수국(*H. serrata* for. *buergeri* Nak.)은 장식꽃잎 가장자리에 거치가 있다. 또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떡잎수국(*H. serrata* var. *acuminata* for. *coreana* T. Lee)은 산수국이나 다른 수국들보다 잎이 두껍다.

■ 산수국의 생존전략

한 생명이 지구상에 살아남는다는 것은 자신의 명이 다했을 때 종족이 지속적으로 뒤를 이어간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산수국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을까? 벌 나비들이 자주 찾지 않는 어두운 숲속에서 후손을 남기기 위한 산수국의 생존전략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전략은 장식꽃과 화려한 색깔변화다.

명(明)보다 암(暗)이 짙은 음지에서는 어떻게든 벌과 나비, 심지어는 파리도 좋고 날아다니는 모든 곤충들의 시선을 잡아야만 한다. 그런데 산수국의 진짜 꽃은 화려하지 못하다. 작고 불품(?)이 없어 곤충의 이목을 끌지 못해 후손을 잇지 못할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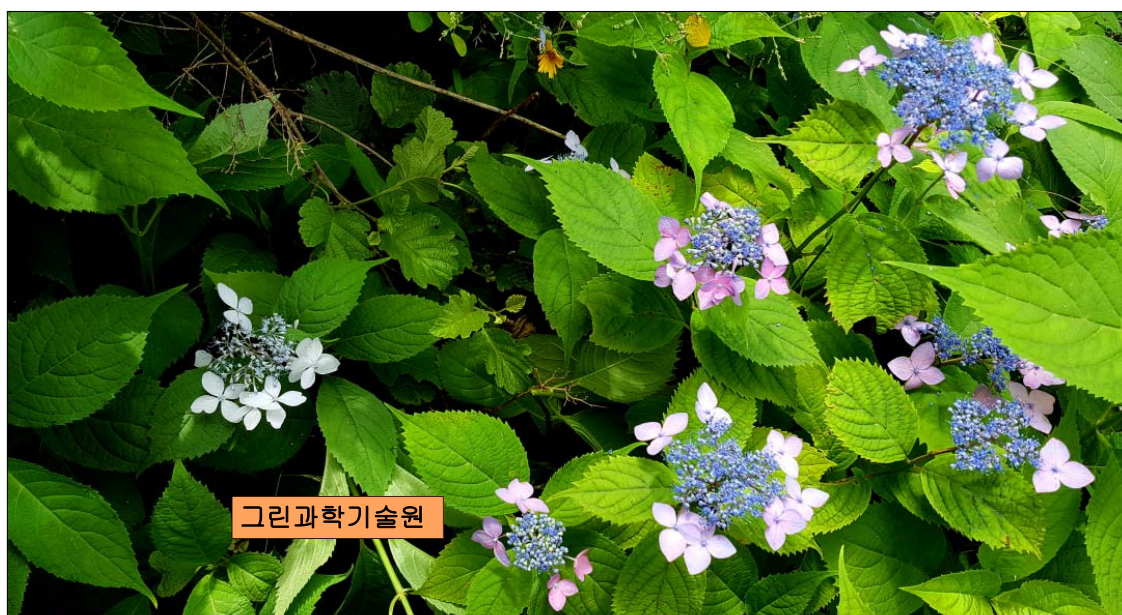
그러나 산수국은 다행스럽게도 진짜 꽃을 대신할 장식꽃이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곤충의 눈에 잘 띄는 하얀색이다. 빨강이든 노랑이든 어두운 곳에서는 모두 검게 보일 뿐이다. 그러나 흰색은 멀리서도 하얗게 나타나 남의 이목을 끌 수 있다. 그래서 장식꽃이 하얗다.

그런데, 하얀 장식꽃도 색깔변화가 일어난다. 색깔은 명암과 관계가 깊어

햇빛을 받는 양에 따라 달라진다. 어두운 곳에서는 흰색, 그보다 밝은 곳에서는 보랏빛(청), 별이 많은 곳에서는 분홍색을 띤다. 조금이라도 햇빛을 보게 되면 흰색의 장식꽃이 보라 또는 분홍으로 바뀌는 것이다.

바람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그 사이로 햇빛이 언뜻언뜻 자주 비추면 꽃은 밝은 곳에서도 잘 보이는 보라색이나 분홍으로 변한다. 빛이 많은 곳에서는 흰색보다 유색(有色)이 곤충의 눈에 더 잘 띄기 때문이다. 사실 이 같은 장식꽃의 색깔 변화는 꽃잎 속의 안토시아닌(anthocyanin, 색소배당체)이 명암에 따라 형질변화가 발현되기 때문이다.

■ 명암과 색깔변화(그늘진 곳 흰 장식꽃 - 좌. 빛 많은 곳 분홍 장식꽃 - 우)



다음은 이웃 꽃의 수분 수정을 위한 재빠른 퇴각이다.

후손을 남기기 위한 장식꽃의 두 번째의 행위는 임무가 끝나면 재빠르게 퇴각하는 것이다. 곤충의 도움으로 진짜 꽃이 수분 수정이 되면, 더 이상 자기에게는 오지 말고 아직 수정하지 못한 꽃에 가라고 꽃대를 뒤틀어 진짜 꽃을 등지고 아래로 처진다.

그리고는 서서히 말라 열매가 익어가는 10월이면 죽어서 사라진다. 생존이라는 전투에서 동족의 승리를 이끈 전사가 장엄하게 전사(戰死)하듯 그렇게 장식꽃은 사라진다.

■ 장식꽃 색깔변화, 꽃대가 뒤틀려 참꽃을 등지면서 밑으로 처짐(8월 하순)



■ 열매 완숙기에 임무를 다하고 사라져간 장식꽃(10월 중·하순)



세 번째, 진짜 꽃은 외모보다는 번식에 전력을 다한다.

식물이든 짐승이든 이성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심정(?)은 사람과 매 한 가지다. 호주에 서식하는 바우어 새(bower birds) 수컷은 암컷의 이목을 끌 만한 외모가 못돼 집을 화려하게 꾸며 암컷을 유인한다. 바우어 새 수컷은 나뭇가지를 모아 집을 짓고 그 앞에 정원까지 만들어 반짝이는 색유리 조각

이나 조약돌, 심지어 사람이 버린 병뚜껑까지 물어와 장식한다. 이렇듯 동·식물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외모에 많은 정성을 들인다. 그럼에도 산수국은 왜 진짜 꽃의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걸까?

그것은 바로 외모 가꾸기에 소모되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다. 가짜 꽃의 미모로 곤충을 유인하고 자신은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맺는 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아름답게 꽃피는 데에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 없이 후대의 자손 번창이라는 실속을 차리겠다는 뜻이다. 이것이 진짜 꽃이 아름답지 못한 이유다.

아름답다거나 못생김은 인간의 잣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간만을 탓할 수도 없을 것 같다. 예쁜 장식꽃을 따버리면 벌과 나비도 찾지를 않기 때문이다. 그들도 이끌리는 심정은(?) 사람과 같은가 보다.

■ 열매

열매는 삭과(蒴果, capsule, 열매 속이 여러 칸으로 나뉘고 각 칸마다 종자가 들어있는 구조)로서 9~10월에 익는다. 11월경 완전히 익은 열매는 껍질이 갈라지고 종자가 나온다.

■ 산방화서로 맺힌 열매(10월 중·하순) ■ 줄기와 겨울눈(11월 초순)



■ 가지와 줄기

지표면에서 여러 대의 줄기가 나와 무성한 포기를 이루어 반구형의 수형(樹形)을 이룬다. 어린 가지는 연한 녹색이고 털이 뽁뽁하다. 목질화가 된 오랜 줄기는 갈색~회갈색이고 수피가 허물처럼 얇은 조각으로 벗겨진다. 줄기

속은 수수깁처럼 흰색의 부드러운 속심이 있다. 겨울눈은 긴 원뿔모양이며 노란 갈색이다.

산수국은 꽃과 잎으로 차를 끓여 마시며, 토상산(土常山)이라는 생약명을 가지고 있다. 여름에 꽃, 잎, 줄기, 뿌리를 채취하여 햇볕에 말린 다음 말라리아(학질), 고열, 기침, 당뇨, 가슴 두근거림의 강심제로 달여 마신다고 한다.

② 번식, 식재와 유지관리

■ 유성번식 - 종자(실생)번식, 무성번식 - 삽목, 포기나눔

산수국은 종자에 의한 양성번식과 삽목이나 포기 나눔 등의 무성번식 둘 다 가능하다. 실생번식(양성번식)은 10월에 잘 익은 종자를 채취하여 기건저장(氣乾貯藏, 상온에 말려서 보관)하였다가 이듬해 봄 파종상에 젖은 이끼나 모래를 깔고 파종한다.

또 봄철 새순이 나오면 새싹을 포기나누기 하거나 휴면지 삽목을 하는 등 무성번식 시키기도 한다. 초여름 7월에 잎이 달린 가지를 10~15cm 길이로 잘라 땅에 꽂는 녹지삽(綠枝插)을 하고 가을에는 그해 자란 가지를 잘라 삽목한다.

■ 식재 적합지(생육환경)

산수국은 척박한 곳보다는 유기질이 많아 비옥한 적습지가 알맞다. 햇볕이 많은 양지에서는 꽃(중성화)이 아름답지 못하며, 나무 밑 그늘진 곳에서 생육과 개화가 좋다.

■ 생리·생태적 특성

내 한 성	강	내 음 성	강 (음수~반음수)	맹 아 력	강
내 건 성	약	내 염 성	약	이 식 력	강
내 습 성	강	내공해성	강	생장속도	보통

■ 유지관리 - 전정과 시비

수분조건만 갖추어지면 손이 가지 않는 나무로서 전정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동로 변에서 정돈된 겨울 경관을 창출하려고 하면 지상부를 모두 베어버리고 이듬해 새순을 받는다.

시비할 필요는 없지만 땅이 건조하여 개화·생육이 불량한 경우 시비해도 좋다. 시비는 이듬해 봄 새순이 나오기 전 뿌리권에 구덩이를 파고 부산물 비료 또는 유기질 비료를 시비하여 토양 보습력을 높이면 회복된다. 화학비료는 부산물 비료를 시비한 후 그 위에 인산이 높은 비료를 시비한다.

■ 유지관리

전 정	불필요 (자연수형 가꾸기)	번 식	실생번식. 무성번식
시 비	필요시 가을~월동기 (부산물·유기질 비료)	적 합 지	보습력 좋은 사질양토. 유기질이 많은 비옥· 적습지
		병 해 충	강 (진딧물, 미국흰불나방)

③ 산수국 조경

■ 반 음지 군식 사례



■ 반음지 이동로(카트 로) 변 산수국 열식(블루마운틴CC.)



■ 산수국 자연분포 특징을 살린 바위틈 포기 식재(블루마운틴CC.)



■ 음지 군식(群植) 또는 열식(列植)

음지에 식재할 수 있는 조경수는 그리 많지 않다. 산수국은 하층식생 발달이 불량한 상록성 교목의 하부 식재용으로 적합하다. 잣나무처럼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무 밑에서는 덩불모양으로 무리지어 심어도 좋고, 음지의 이동로 주변에는 열지어 심어도 좋다. 물론 경사지에서는 사면(斜面) 전체가 덮

이도록 식재하면 개화기에 장관을 이룬다.

(2) 수국

- 학명 : *Hydrangea macrophylla* for. otaksa Wilson
- 영명 : House hydrangea, Japanese hydrangea
- 한명 : 繡菊花, 紫陽花, 醉人仙, 粉團, 水菊

① 형태적 특성

■ 잎

잎은 대생(對生, 마주나기)하며 길이 7~15cm, 폭 5~10cm의 난형(卵形, 계란모양)~넓은 난형으로서 두껍고 주름이 지며 윤택이 있는 질은 녹색이다. 잎의 선단은 예침두(銳尖頭, 끝이 날카롭게 뾰족한 모양)이고 기부는 설저(舌痕, 밑이 참새 혀처럼 점점 좁아지는 모양)로서 가장자리에 큰 거치(鋸齒, 톱니)가 있다.

■ 꽃

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성화(無性花)로서 6~7월 가기 끝에 산방화서(繖房花序)로 핀다. 마치 꽃잎처럼 보이는 가장자리의 장식꽃은 4~5개의 꽃받침 조각으로 구성된다. 가운데의 작은 꽃 중성화는 꽃잎조각이 4~5장이고 수술은 10개, 암술은 퇴화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들 장식화와 중성화가 모여 지름 10~15cm의 공 모양 큰 꽃봉오리를 이룬다. 장식꽃의 색깔은 여러 가지다. 개화 초기에는 흰색이다가 보라색(紫色)이 되고 점차 홍색으로 변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보라색으로 변한다. 그래서 꽃말도 ‘변하기 쉬운 마음’ 심하게 표현하면 ‘바람둥이다.’ 어디까지나 사람의 지어준 꽃말일 뿐이다.

■ 꽃 색깔변화의 비밀

수국 꽃의 색깔 변화는 사실 유전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 그런데 토양의 산성도에 따라서도 꽃의 색깔이 달라진다. 산성이 강한 토양에서는

푸른빛이 많고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진한 분홍색의 꽃이 핀다. 이것은 토양 속에 함유된 알루미늄 등의 금속이온 흡수에 의한 것이다.

토양 속의 알루미늄(Al)은 토양 pH(산도, 수소이온 농도)에 의하여 용해되어 이온화(ion 化) 된다. 용해된 알루미늄 이온은 수국에 흡수되고 꽃이 함유하고 있는 안토시아닌(anthocyanin, 색소배당체)과 결합하여 청색으로 변한다. 중성이나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알루미늄이 용해되지 않기 때문에 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토시아닌의 지배로 붉은 색을 띠는 것이다.

그렇다면 토양이 반드시 산성일 필요는 없지 않은가 !

토양 중에 알루미늄 성분이 이온 상태로 존재하고 그것을 수국이 흡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꽃의 색깔 변화는 토양 pH가 아니라 산성인 토양에서 알루미늄이 용해 흡수됨으로써 색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땅에 심어진 수국인데 여러 가지 색깔의 꽃을 피우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그것은 각각의 뿌리가 뻗은 방향이 다르고 그 뿌리가 뻗은 방향의 토양성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토양 pH 때문만은 아니다.

■ 수국 잎과 꽃(참꽃 - 가운데 작은 꼭지. 장식꽃 - 가장자리 홍 보라색 꽃, 7월 중순)



■ 줄기와 가지

수고 1m 정도로 자라는 낙엽활엽관목이지만 겨울추위에 줄기가 말라죽는

다. 원산지는 중국인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수국은 일본에서 육종된 원예품종이다. 줄기는 지표면에서 여러 대가 나와 전체적으로 둥근 수형을 이룬다.

말린 잎과 가지를 팔선화(八仙花)라 하여 말라리아(학질), 심장질환(가슴 두근거림)의 강심제나 해열제로 쓴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수국차’라고 해서 말린 잎과 가지를 차로 우려서 마시거나 단 것을 금하는 당뇨병 환자가 설탕 대용으로 쓴다고 한다.

② 번식, 식재와 유지관리

■ 무성번식 - 삽목, 포기 나누기

수국의 꽃은 불임성인 중성화로서 열매를 맺지 못해 삽목으로 번식시킨다. 3~9월까지 삽목이 가능한데, 5월 중순~6월 상순에 잎이 달린 가지를 10~15cm 길이로 잘라 땅에 꽂는 녹지삽목(綠枝挿木, 녹색 줄기 또는 가지를 잘라 꺾꽂이)을 한다. 우기의 7~8월에는 가지를 휘어 땅에 묻는 휘묻이를 하여도 뿌리가 내린다.

수분조건만 좋으면 이식이 잘 되며, 이른 봄 새싹이 나올 무렵 뿌리덩이를 갈라 포기나눔(分株)으로 증식시키기도 한다.

■ 식재 적합지(생육환경)

유기질이 많아 비옥한 적습지가 알맞고 다소 그늘이 진 곳, 햇볕이 과하거나 건조하지 않은 곳이면 잘 자란다. 토양은 중성인 땅에서 생육이 좋다. 서울, 경기 등의 중부지방에서는 노지월동이 어렵지만, 최근에는 가정의 화단에서 목질화가 된 줄기가 월동 가능한 개량종을 종종 볼 수 있다.

■ 생리·생태적 특성

내한성	약	내음성	중용 (반음수)	맹아력	강
내건성	약	내염성	약	이식력	강
내습성	강~중	내공해성	강~중	생장속도	속

■ 유지관리

수국(水菊)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물을 좋아해 물 부족만 없으면 무리 없이 자란다. 한여름 건조기에 수분부족으로 잎과 어린 줄기가 시들어 처지는 예가 있다. 이때 오후 늦게 또는 밤사이에 물을 흠뻑 주면 다음날 아침 시들었던 잎과 줄기가 생생해진다.

■ 유지관리

전 정	강 (가지숙기)	번 식	무성번식 (삽목, 휘묻이, 포기나 눔)
시 비	가을~월동기 (부산물·유기질 비료)	적 합 지	사질양토 (비옥지, 적습지)
	생육기 (낙화 후 화학비료)	병 해 충	강 (진딧물, 응애, 흰가루 병)

③ 수국 조경

여름철 우아하게 피는 탐스러운 꽃은 관상가치가 높아 정원 첨경수(添景樹)로 이용된다. 꽃이 화려해 가정의 뜰에 자주 등장하고 무성화라는 특징이 있어 사찰조경에도 쓰인다. 넓은 잔디밭 위에 작은 덩불모양으로 군데군데 펼쳐서 소군식하면 어울린다. 큰 나무 밑 잔디밭에도 소군식하면 좋다.

■ 개활지, 큰 나무 밑 잔디밭 수국 식재(7월 중순)



(3) 나무수국

- 학명 : *Hydrangea paniculata* Seib.
- 영명 : Panicle hydrangea
- 한명 : 木水菊, 木繡菊

① 형태적 특성

■ 잎

잎은 대생(對生, 마주나기)하지만 때로는 3장씩 윤생(輪生, 돌려나기)하기도 하며, 길이 5~12cm, 폭 3~8cm의 난형(卵形, 계란모양)~타원형이다. 선단은 예침두(銳尖頭, 끝이 날카롭게 뾰족한 모양)고 기부는 원저(圓低, 밑이 둥근 모양)이며 가장자리에 예거치(銳鋸齒, 날카로운 톱니)가 있다. 어린잎은 표면에 털이 있지만 커가면서 없어지고 뒷면은 연한 녹색이며 엽맥(葉脈, 잎줄)에 털이 있다.

■ 나무수국 잎, 가지, 꽃(8월 중 · 하순)



■ 꽃

꽃은 7~8월 가지 끝에 큰 원추화서(圓錐花序, 여러 대로 갈라진 꽃대에서

개화하여 길쭉하게 둥근 원뿔모양)로 하얗게 핀다. 꽃봉오리 길이는 20cm를 넘고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양성화와 꽃잎처럼 보이는 큰 장식화가 함께 핀다.

양성화는 3대의 꽃대(花柱)에서 나오고 꽃받침 5장, 꽃잎 5장, 수술이 10개다. 장식화는 꽃받침 3~5장, 퇴화된 암술과 수술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꽃은 흰색으로 피지만 홍색으로 변하고 여름을 지나 가을이 가까워오면서 적갈색으로 변하며, 겨울을 넘겨 이듬해 봄까지 마른 채 붙어있다.

꽃이 중성화(장식화)만 있는 것을 큰나무수국(*H. paniculata* for. *grandiflora* Ohwi)이라 한다.

■ 붉게 변한 나무수국 꽃(10월 하순)



■ 열매

열매는 타원형의 삭과(蒴果, Capsule, 열매 속이 여러 칸으로 나뉘고 각 칸에 여러 개의 종자가 들어있는 구조)로서 10~11월에 익는데, 끝에 암술대가 남아있다.

■ 가지와 줄기

수고 2~3m 정도 자라는 낙엽활엽관목으로서 어린 가지는 갈색이고 목질화가 된 오랜 가지는 회색을 띤다.

나무수국의 꽃은 분단화(粉團花)라 하고 뿌리는 분단화근(粉團花根)이라 하여 약용하는데 말라리아(학질)나 점골에 효능이 있다고 한다.

■ 나무수국 수형(8월 중 · 하순)



② 번식, 식재와 유지관리

■ 무성번식 - 삽목, 포기나눔

나무수국은 삽목과 분주로 증식시킨다. 삽목은 산수국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7월 중순~하순경 잎이 달린 녹지(1년생 가지)를 10~15cm 길이로 잘라 땅에 꽂는 녹지삽을 한다. 꽃이 좋은 어미나무의 경우 접목으로도 번식이 가능하다. 수분조건만 좋으면 이식은 잘 되는 편이다.

■ 식재 적합지(생육환경)

나무수국의 생육적지(適地)는 배수가 좋은 사질양토이며 수분조건이 좋으면 양지에서 생육이 좋다.

■ 생리 · 생태적 특성

내 한 성	강~보통	내 음 성	양수	맹 아 력	강
내 건 성	강~보통	내 염 성	약	이 식 력	강
내 습 성	중~약	내공해성	강	생장속도	속

■ 유지관리 - 전정과 시비

나무수국은 자연수형 그대로 가꾸는 것이 좋다. 다만 수관부가 어지럽고 밀도가 높을 경우 가지숙기 정도로만 관리한다.

척박한 곳에서는 생장이 불량하고 꽃도 아름답지 못하다. 식재할 때 구덩이에 완숙된 부산물비료 또는 유기질비료를 넣고 그 위에 나무를 심으면 보습효과가 높아 생육이 좋다. 특히 경사지에 식재할 경우 부산물 비료 시비가 필요하다. 식재당시 시비가 안 된 경우 나중에라도 경사면 상단에 구덩이를 파고 시비하는 것이 좋다.

■ 유지관리

전 정	불필요 (가지숙기)	번 식	무성번식 (삽목, 휘묻이, 포기나눔)
시 비	가을~월동기 (부산물·유기질 비료) 생육기 (낙화 후 화학비료)	적 합 지	사질양토 (비옥지, 적습지)
		병 해 충	강 (진딧물, 응애, 흰가루병)

③ 나무수국 조정

■ 티잉 그라운드 이동로 변 여름경관 자연미 창출 나무수국(8월 초순, 대유몽베르CC.)



크고 흰 꽃이 아름다워 독립수로 식재해도 좋다. 골프장의 경우 티잉 그라운드나 그린 후방에 독립수 또는 소군식해도 좋다. 이동로 주변에서는 20~30m 길이의 생울타리 형으로 열식하면 개화기에 장관을 이룬다.

■ 이동로 변 여름경관 창출 나무수국(8월 초순, 대유몽베르CC.)



■ 이동로 변 겨울경관 창출 나무수국(4월 중순, 대유몽베르CC.)

